



유로존 신용경색, 경기회복에 부정적 영향

이경아 연구원

- 유럽중앙은행의 은행대출조사(ECB's bank lending survey)¹⁾에 따르면 유럽 재정 위기로 인해 유로존 지역이 심각한 신용경색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.
 - 금번 위기로 은행들의 자금대출 조건이 까다로워지면서 기업과 소비자에 대한 신용공급이 어려워지고 자금 수요 역시 급격한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.
- 기업대출 부분에 대한 신용긴축(net tightening of credit standards)의 응답 비율과 소비자 신용 부분에 대한 신용긴축의 응답 비율은 각각 35%, 29%로 전분기에 비해 모두 증가세를 나타냄.
 - 기업 부분의 순신용긴축비율²⁾은 전 분기 16%에서 이번 분기 35%로, 소비자 부분의 순신용긴축 비율은 18%에서 29%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2009년 4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에 해당됨.
- 조사에 따르면 은행의 대출조건이 엄격해진 것 외에도 자금 수요 측면에서도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.
 -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로 기업들의 투자 축소 및 지연, 대규모 기업매수합병(M&A) 보류 등으로 기업 부분 자금수요가 크게 감소하였으며, 주택담보대출(mortgage) 수요도 감소세를 지속함.
- 이에 대해 유럽중앙은행(ECB)의 장기대출 프로그램(LTRO)이 향후 신용경색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.

1) 은행대출조사는 유럽 지역 내 124개 은행을 대상으로 한 조사로 전 분기의 신용상황 변화와 다음 분기의 신용여건에 대한 은행들의 예상을 중심으로 집계됨.

2) 순신용긴축비율은 해당 기간 동안 신용긴축을 응답한 은행의 비율에서 신용완화를 응답한 은행의 비율을 차감하여 산출함.

- ECB 총재인 드라기는 ‘4,890억 유로 규모의 3년 만기 대출로 최악의 신용경색은 피할 수 있을 것’이라고 전함.
- 실제 장기대출의 자금집행에 약 3~4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할 때 이번 봄부터는 실질적인 자금조달 비용감소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
(Financial Times, 2/1)